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한국인양 성장
민주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곡동 1가 11길 11 (화곡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Ŏ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주일예배의 신령한 찬양을 위한 제언

'구역예배 시간'에 목상하며 준비하는 주일찬송

'주간충현'에서 7월 22일부터 제6면을 통해서 소개하는 주일찬송은 개인적으로 목상하고 준비해도 좋겠지만, 특별히 구역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준비해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역예배 때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주일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이다. 금요일마다 각 구역에서 주일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찬송도 목상하고 준비한다면, 주일예배가 진정으로 감동과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케 하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시 107:9).



신혼가정부 집회시간 변경 7월 22일(주일)부터 오전 11시에서 12시 15분으로 변경

신혼가정부의 집회시간이 7월 22일(주일)부터 오전 11시에서 12시 15분으로 변경된다. 신혼가정부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변경된 집회시간을 유념하여서, 신혼가정부 정기모임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란다.

지나 수요일에 통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말 1:4-6)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매우 의미 있는 선교지였다(행 16장). 예수의 영(靈)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발걸음을 환상을 통하여 마케도니아로 돌리게 하였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사례를 주게 하였다. 또한 그곳도 바울이 정치는 여중에게서 구원을 내뿜는 바위에 매달고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그 덕택에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곳이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부르고 있다(12~10까지 '너희'가 11번 사용). '너희'란 칠것과 같이 가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존재였으나, 바울이 전해온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good work)이었다. 이 착한 일은 결코 인간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인간에 의해 형성된 일도 아니었다. 우리는 문화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부모님과 선생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며 성장한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다면 그도 역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을 가르쳤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비로소 하나님의 '착한 일'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한 착한 하나님의 '착한 일'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종 같을지라도 나와 같이 회개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라고 선포되었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호세아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꺾으셨으나 내가 나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호 6:1)라고 선포되었던 말씀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죄를 돌이키고 죄 씻을 법기를 원하시는 '영성으로의 간절한 초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착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당신의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착한 일이 성취될 것이라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룬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고 된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복음으로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에 보내신 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3장 16절~17절, 36절, 5장 24절과 39절, 그리고 6장 38절~40절에서도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한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고 있다. 그리고 17장 2절~3절에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은 구역에서 일어나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시아비지인 유다와 동방인 불륜의 여느리 다윗(창 38:15~26), 인간이 만든 견고한 죄악의 성, 예루살렘 구원에 이른 친한 기생 라합수 21~22), 남편 없이 살아 가는 가나안 이방 여인 룓(룓 1:6). 다윗과 함께 범죄에 휘말려서 돌아 맞아 죽어야 했을 유리의 아내 밋세바(삼 11:~4). 그러나 그녀들은 모두 예수의 초상이 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의 소리와 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돌볼 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고 구분짓고 하나님은 절대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이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이더라(롬 1:16~17).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라는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곧잘 성경을 '위인전'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본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위대한 정열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아니!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기록된 바 위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으며"(롬 3: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로다"(롬 3:23)라고 인간의 결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롬 6:23). 본받을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토록 외치고 있는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돌이키자! 죄에 불탄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그가 행하시는 '착한 일'을 향하여 돌아서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2001 후반기 장학생 선발

7월부터 시작된 장학생 선발이 8월에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 방침은 전반적 장학생으로서 재선정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현재 전반기 장학생은 이미 2000년도 전반적 성적으로 선발되었기에 그대로 인정하며, 이번부터 한 학기 앞당겨 실시하여 등록금 납입 기일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하였다. 심사방향은 대학원, 대학생의 경우 현재 교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금정적으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후반기 장학후보생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해당자들은 날짜에 주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란다.

- | | |
|-----------|-----------------------|
| 7월 2일~22일 | : 장학생 신청 접수 |
| 7월 28일 | : 후반기 장학생 심사(서류 및 면접) |
| 8월 2일~3일 | : 장학생 수련회(출천기도원) |
| 8월 4일(토) | : 장학생 사경회 |
| 8월 5일(주일) | : 최종 선발자 명단 선정 |
| 8월 8일(수) | : 8월 정기 당회 상정 |
| 8월 9일~30일 | : 장학금 지급 |

신학 칼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사람들은 우리집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 "어찌 이렇게 아들이고 아버지께 똑 빼닮았어요?" 나는 이런 인사를 대할때면 왠지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한 번 더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얼굴에는 나를 닮은 모습이 있는 것일까? 그들의 아이들은 아홉만 닮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커갈수록 또 다른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겉을 겉이, 말하며 행동하는 모습들... 누가 꼭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닮을까? 어느날이든. 큰 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닮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을 지켜보니 부모로서 우리가 자기를 가르칠 때 했던 모습 그대로 자기 동생 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눈에는 한없이 어리고 자기 일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아들이면 것만 같은데, 동생을 가르치는 모습은 어느새 우리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창 1:27).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골 5:8) 말이다. 나는 종종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빌립과 예수의 대화를 생각하곤 한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는 본래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였노라"(요 14:8)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나나 성령 안에서 변화된 빌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일컬음을 받는 일이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되게 말라. 그리고 이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보게 될 날을 생각한다."

이홍성 (목사, 교수원회 지도자)

Divine Capability

(Matthew 19:26)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to them,

"With me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God is all-powerful (omnipotent)! His divine power is eternal and immeasurable. Through Him Christians receive power. What kind of divine capability does He have? Today's Bible verse tells us, "And looking at them Jesus said to them, 'With people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Mt. 19:26). Amen! Jesus taught His disciples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Whatever things man cannot do, God can! God will give His power to those who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Mk. 9:23). Humans need God's divine capability. We cannot live without it. Let's look at the kind of power God has and Christians receive through faith in and obedience to Jesus Christ.

God has saving power. He is able to save you from death—eternal damnati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Jesus is the Savior of all mankind.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 7:25). Note the words "forever" and "lives". Jesus saves you forever (completely and for all time), and He lives to save humans. He lives so that whoever comes to Him can go to heaven. He is our eternal high priest. Our Lord, being perfect, offered Himself for our sins once for all.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He holds His priesthood permanently. If you go to Jesus, He will wash away your

sins and be able to save you.

God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make you stand in the presence of His glory blameless with great joy" (Jude 1:24). If you think you can stand by yourself, without the help of Jesus, think twice. All those who think they are self-empowered will fall,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1 Cor. 10:12). My friends, if you are standing on your own, you have already fallen. You just don't realize it. God is the only one who can keep you from falling into death, despair, and sin.

God is able to sanctify you,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Acts 20:32). From the moment you accept Jesus, you are sanctified, standing in perfect holiness before His throne. Your daily growth in grace becomes in practice more and more set apart for God's use until you reach heaven, where you will be fully and completely set apart to God. God makes you strong and holy so that you can receive your inheritance. Satan desperately tries to destroy your building, but God can build it stronger because Jesus has the power to build up. And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do this, "Who are you to judge the servant of another? To his own master he stands or falls; and he will stand,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Rm. 14:4). Please don't judge other people because you cannot make yourself strong.

Sanctification is accomplished only by the grace of God. The Holy Spirit empowers you, not your own talent.

God is able to help you through your trials and tribulations. Jesus took the hardest test and passed. He is able to help you win any trial, "For since He Himself was tempted in that which He has suffered, He is able to come to the aid of those who are tempted" (Heb. 2:18). He's been there, and He knows the way out. Amen! When you are going through a trial, He can help you so that you can have victory too. God has the power to see you through all suffering.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everything, you may have an abundance for every good deed" (2 Cor. 9:8). Amen! God has the power to do this! Through His grace we can have a rich and plentiful life. Glory be to God!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Bible also tells us,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Eph. 3:20).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is the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God gives to us super-duper abundantly. Amen!

God is able to perform what He has promised. Abraham's faith was in God," and being fully assured that what God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Rom. 4:21). Do you believe in God's promises? Do you live your life believing all that God has promised will be done? If not, you should.

God is truth, He cannot lie. His promises are sure!

So, now that you know what God is able to do, why are you so depressed? Why are you needlessly suffering in despair? Why do you give-up and seek others ways, which are earthly and decaying? God is all-powerful! He's given us His absolute love and righteousness through His only begotten Son. He sent Jesus to this earth for you, to die for your sins. Jesus saves us for eternal life. He keeps us from falling apart by sanctifying us through His Spirit. The Holy Spirit builds up your life. When you take the cross and the hard times that come with it, you have to remember that Jesus was already there. He won the victory at the cross so that you can experience success in your life and be filled abundantly with the grace of God. He always works with you. Whatever you ask or think, He will give to you richly. Not only that, He promises these things so that He can perform these things.

My friends,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are so stupid. You have access to God's divine capability through Jesus, who loves you with all His heart and His life. You have the Holy Spirit to guide you until your leaving. The sovereign God, creator of everything, is behind you as your Father. Why worry? Start believing in the power of God, and don't give up. Move forward in His power. You have a divine capability that will see you through the worst of times. Praise God! Amen. 🙏



김성관 목사

그의 능력

(마 19: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신적 권능은 영원하며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얻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아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다 함께 살펴봅시다.

구원하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죽음, 곧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히 7:25). 여기서 “영원한”과 “살아 계심”의 의미가 중요함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며(이것은 완전하고 무한한 것(항상)을 의미), 그 일을 위해 살아 계십니다. 그는 또한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완備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가 영원히 존재하시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간다면, 그는 여러분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타락을 막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라 거침이 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1:24).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거룩케 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락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새우라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행 20:32).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룩하며, 그의 보좌 앞에 완전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성장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어 실제 생활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별되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하여 신자들의 성장을 막으려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지신 새우는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세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 즉 성화(sanctification)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능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것은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새우를 받으리라 이는 자를 새우시는 능인이 주께 있음이니라”(롬 14:4).

시험과 시련에서 건지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시험에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8). 그는 늘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하셨으며 그 탈출구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은혜의 풍성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아멘! 하나님은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부요하고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으며, 그는 “약속하신 것을 도한 것이 아무 실 줄을 확신”하였습니까(롬 4:21).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거짓을 말할 수 없으므로,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여전히 필요 없는 슬픔에 빠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은 필요 없이 절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니까? 왜 주의 함께 가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적이고 썩어질 다른 길을 찾아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의를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새우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이미 거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면 그는 풍성히 주시며,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과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우리의 등 뒤에 서 계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악의 시기에 처해있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자우편(E-mail) 있으세요?

청년1부에는 통성명을 할 때마다 “전자우편 주소 있으세요?”라고 묻는 한 형제가 있다. “예, 000@000.000 인터넷요” 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면 그 형제는 반드시 며칠 후 먼 타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들게 버티나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제목들과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의 따끈따끈한 편장을 편지에 담아 선교지 소식을 전해준다.

이 형제가 전자우편 주소를 만든 건 1998년 12월 초 백수시절이다. 평소 선교에 관심이 많은 형제는 도봉도서관에서 주소를 만들고는 전자우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지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기 시작했다.

형제는 이러한 전자우편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간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느꼈다고 한다. 때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무기력해져 붙들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순종할지 원하시기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과 적지 않은 시련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형제·자매들의 격려의 편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이사야 41:10)

컴퓨터가 없는 이 형제는 오늘날 인터넷을 중개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구절 인터넷 카페 구축된 자리에서,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문화권 사람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젠 너도 나도 다루어야하는 컴퓨터도 하나님의 신종 복음 전도의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장점이 아주 많은 전도 방법인 반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영적 전투 또한 아주 치열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 복음 또한 한낱 단순한 정보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어가는 것이기에 기쁜 일인 것이다.

누군가 당신께 두루두루 다가와 물어 볼 것이다. “전자우편 있으세요?”

(인복남 기자)

마지막 기회

장은 숙 (영년1부, 74동기)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
게...
이런
게 죄
많은
내가
어떻
게...”

강남병원
5층 중환자실

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나는 영적 기도가 끝났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만 반복해

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한

영혼을 당신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리라. 얼마

나 감사한지요!

누군가 내게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계기가 무엇이 있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전 주저없이 “병원전도”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뛰어들었던 병원전도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유치원 교사생활보다도 어느덧 더 오래되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절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전도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로 그 시간을 바쁘게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언약한 데 안에서 지금도 가끔은 그런 유혹이 고개를 들지만 주님께서 내게 병원전도 외엔 그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일깨워주신 이후부터는 선불리 다른 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저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도 기적이 부치실 텐데 영적기도를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하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던 중환자실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도 내겐 참 귀하고, 4년 전 병실에서 만났던 형제인데,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아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도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도 귀합니다.

깨끗한 배설과 아픔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분들, 보기에 애절한 모습을 한 환자분들의 모습, 우리를 자각고 병당하게 대하는 환자분들과 귀찮아하며 차갑게 대하는 간병인들. 때로는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이런 분위기인지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품게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짧은 기도를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환자분들이 우리들의 큰 기쁨이고 은혜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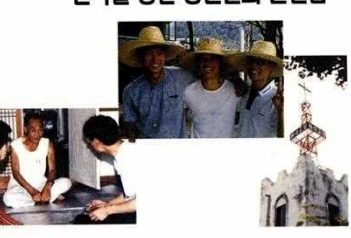
글·그림·김범현



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기쁜 순간은 바로 아픈 영혼들이 있는 병원이라 생각됩니다. 병원전도를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보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전 병원전도를 할 때마다 ‘저기 병실에 누워 계시는 분이 만약 내 부모님이라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바로 제 어머니, 아버지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 분들을 이마로 제 어머니, 아버지 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 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까지는 기쁨으로 감당할지 원합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



청년1부는 1차(7월23일에서 7월26일까지) 커리어 교회, 2차(7월30일에서 8월2일까지) 천국교회와 용성교회, 3차(8월6일에서 8월9일까지) 예미중앙교회와 학동교회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번 여름 농촌사역은 5개 팀으로 나뉘어 축초전도와 어린이성경학교, 일손돕기 등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촌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준비하는 과정과 사역하는 기간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농촌사역의 전체 기도제목으로는

1. 사역에 참여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과 쓴 뿌리가 사탄에게 치어 주님께 이르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2.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기복한 성령님의 도우기 될 수 있도록

4.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온유와 겸손과 담대함으로 할 수 있도록
5.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영육간의 건강이 지체될 수 있도록
6. 사람으로 나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함으로 주 안에서 교제가 증진될 수 있도록
7.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여부는 물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8. 한지 주민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9. 또한 한지 주민들의 마음발을 일구어 주사 복음을 전할 때에 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10.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 여름전도사 전체가 감동과 감격의 시간들로 채워져 감사한 이 마음 가운데 날도록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

누가복음(15:3-7)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겠다고 아흔 아홉 마리 양떼를 그냥 두고 어둠에 뛰어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고귀한 행동임이 분명하지만 잠깐 그 이면의 계산법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이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들’에 두고 갔다고 하셨다. 양들은 가족 도둑·늑대·뛰쳐나가는 야생적 육구 등에 그냥 노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어찌에 매고 돌아와 보니 스물 세 마리 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면 그때 목자의 기분은 어땠을까?

요한복음(12:38)에 나오는 한 기사를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외국산 향유 0.5리터·1년치 임금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이 무는 낭비인가. 단 한 방울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유다가 보기에도 이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더러운 마룻바닥에 철철 흐르는 향품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으련만!

세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12:41-44)에 나온다. 예수님이 한 과부가 동전 두 닢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것을 보시고 다른 이들의 고액 헌금을 깎아 내리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케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투라도 부드러우셨어야 할 텐데!... 고액 기부자들은 이런 비교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태복음(20:1-16)에 나오는 네 번째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좀처럼 들은 적이 없는 비유다. 그만큼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품꾼을 쓰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품꾼 중에는 해를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오전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나절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쉬는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다. 일당 지급 때까지는 다들 편찮은 듯했다. 그러나 퇴약벌 아래 일 두 시간 꼬박 일한 층층대는 온지 한 시간도 채 안된 사람들의 일당이 자기들과 같다. 이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인의 처사는 노동자 동기 부여나 공정 보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한 마디로 잔혹한 경제학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 그것이 그분의 취지였다. 그 분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일등이나 꼴찌나를 따지지 않는다.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는 이로써는 천 소유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값보라에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던 것이다.

Philip Yancey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백 영 화’ 성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 프티벨에 소속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엔 늘 중현 교회에 잠깐씩 다녀 보았다. 이번엔 친언니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교회에 가족과 언니 그리고 친구들이 많아서 낯설지 않고 편하다. 신앙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맘 속에 있는 은혜로우시고 친구 같으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기쁘다. 기억에 남는 것은 새가족부의 목사님 말씀과 담임 교사의 좋은 교제, 그리고 새가족 소개 시간에 나의 소개를 하던 일이다. 이로부터 자기와 가족하고 빠짐없이 충실히 교회에 출석하고 학습하기를 약속한다.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5교구 한장자 성도 (여63세) 헬소관 감소중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12교구 한정일 (남58세) 폐암으로 중앙 병원 7105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 세례 받기를 가족들은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환우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와,
돌보는 이 없이 홀로 병상에 계신 한장자 성도를 찾아가
위로와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싼 명품 코트나 한 겨울에 먹는 뜨거운 차나 군고구마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날 내가 만나 뵈었던 그분들은 따뜻하게 못해 뜨듯, 사랑을 마음 가득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가정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에 힘쓰고, 기도응답을 받으면 서로 자기 가정의 일처럼 기뻐하시는 그분들은 바로 우리 교구 식구들이다. 어머니께서 병환 중에 계실 때 그분들이 우리 가정에, 어머니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신들의 친어머니를 모시듯 극진하였다. 천원술·사골·알로에·인삼 등등, 어머니의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집에 생기면 아낌없이 주셨고, 주머니를 털어 어머니 건강에 보탬이 좋은 먹거리들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성도(신자들)의 사랑 담긴 마음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그때 베풀어주신 교구 식구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짜증나기 쉬운 여름을 사랑을 나눔으로 시원하게 보냈으면 한다.

(오미라 기자)

망가졌든 사람

어느 선교사의 고백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않는 죄와 그 위험성과 감시자 못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도 했고, 고문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각오도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았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듭거듭 실패하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결 방책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갖는 특권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내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했으나 그것을 얻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믿음을 생가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활용해 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고문이 점점 더 달랐을 때 한 친구로부터 온 한 글귀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며, 성령께서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침으르만 얻을 수 있다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며, 그의 육신과 뼈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영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과부의 두 램돈

변 장 대 (에바다부 교사)

어느 날 에바다부의 청각장애인으로 지하 단칸 방에서 10살 된 외아들을 키우며 폐병과 폐휴지를 주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과부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가져왔다.

제법 두툽한 봉투에는 보통 사람들에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다. 이 성도님에게는 전세상으로 보여지는 액수였다. 내용인 즉 성도님은 그 동안 영양실조로 두 눈마저 어두워져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안구 기증자가 생겨 각막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격하여 이같은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성도님은 평소에도 주님 한분만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 성도님의 가장 큰 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몸도 약하지만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다. 인젠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며칠 밤을 지낸 후 주일 아침 교구 식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기대한 일도 있을 정도였다. 교회의 절기를 맞으면 에바다부 강단을 훑듯이 장식하는 이 성도님은 꽃값을 드린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작은 일에도 감격하며 언제나 눈물을 뚝뚝 흘리는 홀보 성도님이다. 그래서 지금도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금을 하겠다는 성도님.

주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을 기뻐하셨고, 과부의 두 램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값보다 하셨다. 언제부터인지 주님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헌금이 사라지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다. 그러기에 어떤 행편과 처지의 사람이든 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큰 헌금, 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날에 커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였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사 29:18~19)

성령의 열매

‘예레미야(Jerem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세상은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면에 없게 되는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의 예언서입니다.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르메야후’(yimeyahyuh)인데, ‘여호와께서 언지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시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깨르르린 선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민족 전체에 만연한 죄악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파멸을 고동시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만 흐를 뿐 다시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미리 아고 슬퍼하시는 예수의 눈물을 생각나게 합니다(눅 19:41).

예레미야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사가가 용감하고 겁없는 사자와 같았던 반면에, 예레미야는 온유하며 동정심이 많은 애절한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년 동안의 지속적인 탄압과 편박을 무릅쓰고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끈질기게 수행한 예레미야에게 찬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러한 성질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배에도 역시 찬사를 아니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았든 요시야와 예호야힘, 예조야김, 예호아김, 시드기야의 통치와 시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역대하 33장과 34장 3-36장을 비교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다름주에 계속)

(김동희 목사·출판국 지도)

사랑부의 여름 성경학교

이 삼 열 (전도사, 사랑부 부지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한다. 사랑부도 역시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총원기도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부의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성경학교의 주제대로 사랑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분반 성경공부에 따른 순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이번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사랑부의 모든 교사들은 이번 13회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하였다. 거의 2개월전부터 사랑부의 젊은 교사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젊은 교사들을 힘껏 응원해주었다.

매주마다 일부 교사들은 오직 기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순서를 정하고 준비하였다. 16일 밤에는 성경과 기도회가 어우러진 촛불기도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간은 사랑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극을 보면서 목사의 인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며, 분반 성경공부에 따른 순서로는 하나님의 특별활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가 각각 특성에 알맞은 특별활동을 마련하여서 이를 각 과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랑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중이기에 계획되었다.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은 매일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으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였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빈틈없이 준비되었다. 이제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는 완료되었다. 사랑부 교사들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도록 늘 수 있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랑부 지체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학교에 입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뜻 밖의 장소에서 만난 예수님

언뜻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렀다.

얼마 전,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서 출근자, 깨어 있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었다. 그날 내가 타고 있던 지하철 안의 승객들도 이처럼 대조적인 모습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보니, 그 까닭은 카메라가 출동하는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 기자가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당황한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신만한 얼굴로 기자의 질문에 유쾌한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혹감과 자신감이 묘하게 뒤섞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 당시 나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분위기에 잔뜩 긴장했던 것이 우선기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풍경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 날에는 회개와 영생이 결정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이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묘사해보면, 영원한 우리집,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에 탄 승객들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과연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였는가 하는 태도는 어떠했는가? 심판날을 의식하고 깨어 있었는가? 아니면 방심한 채 자고 있었는가? 이러한 경각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찢었던 생각이 다시 잠겼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31,36,44).”

(김성희 기자)

교회사 / 새가족

모집

1. 장로회교회(서울)
 - 일시: 19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서울)
 - 일시: 17일(일)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3. 전도원교회(서울)
 - 일시: 오는 안수예배 후
 - 장소: 안수예배회장
4. 분사위원회(서울)
 - 일시: 오는 15일
 - 장소: 분사위원회실
5. 안수집사회(서울)
 - 일시: 18일(월) 주일오전 예배 후
 -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1교회(서울)
 - 일시: 21일(수) 19:00
 - 장소: 백악기 강당
2. 바울 2교회(서울)
 - 일시: 21일(수) 18:00
 - 장소: 강당
3. 바울 3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4. 바울 4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5. 바울 5교회(서울)
 - 일시: 22일(목요일) 교구모임 후
 - 장소: 백악기강당
6. 바울 6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영아부실
7. 바울 7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314호
8. 바울 8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207호
9. 바울 9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414호
10. 바울 10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314호
11. 바울 11교회(서울)
 - 일시: 20일(월) 21:40
 - 장소: 교육관 205호(유치부실)
12. 바울 12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13. 바울 13교회(서울)
 - 일시: 21일(수) 19:00
 - 장소: 백악기강당
14. 바울 14교회(서울)
 - 일시: 21일(수) 19:00
 - 장소: 자강동 집사대
15. 바울 15교회(서울)
 - 일시: 오는 15:00
 - 장소: 교육관 407호
16. 바울 16교회(서울)
 - 일시: 오는 19:00
 - 장소: 교육관 407호
17. 바울 17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314호
18. 바울 18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안수예배

19. 예수 1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212호
20. 예수 2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21. 예수 3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안수예배
22. 예수 4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23. 예수 5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24. 예수 6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25. 예수 7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212호
26. 예수 8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27. 예수 9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28. 예수 10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29. 예수 11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30. 예수 12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212호
31. 예수 13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32. 예수 14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33. 예수 15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백악기강당
34. 예수 16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35. 예수 17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교육관 212호
36. 예수 18교회(서울)
 - 일시: 오는 금요일
 - 장소: 강당

장애인 컴퓨터 교육생 모집

1. 직·간·사: 서울에서 거주 장애인(단, 시각·청각 장애인 제외)
2. 교육내용: 컴퓨터와 인터넷 기초교육
3. 교육기간: 3개월 과정
4. 교육비: 무료
5. 문 의: 총헌복지지원(☎ 564-4885 / 지킴이사회재활팀)

총헌복지지원 무료 도서대출 안내

복지회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성마비 등 장애인들을 위해 도서대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적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출시간: 월~금요일 10:00~11:30, 오후 14:00~15:30

위 치: 총헌복지지원 2층(201호) 도서실

문 의: 총헌복지지원(☎ 564-4885 / 지킴이사회재활팀)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 제

1.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소변

1.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정전도회

교사 모집

1.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정전도회

1.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남·녀 전도회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안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전 13:00	본 당
V	오전 15:00	본 당
VI	오전 17:00	본 당
VII	오전 19:00	본 당
VIII	오전 21:00	본 당
IX	오전 23:00	본 당
X	오전 25:00	본 당
XI	오전 27:00	본 당
XII	오전 29:00	본 당
XIII	오전 31:00	본 당
XIV	오전 33:00	본 당
XV	오전 35:00	본 당
XVI	오전 37:00	본 당
XVII	오전 39:00	본 당
XVIII	오전 41:00	본 당
XIX	오전 43:00	본 당
XX	오전 45:00	본 당
XXI	오전 47:00	본 당
XXII	오전 49:00	본 당
XXIII	오전 51:00	본 당
XXIV	오전 53:00	본 당
XXV	오전 55:00	본 당
XXVI	오전 57:00	본 당
XXVII	오전 59:00	본 당
XXVIII	오전 61:00	본 당
XXIX	오전 63:00	본 당
XXX	오전 65:00	본 당
XXXI	오전 67:00	본 당
XXXII	오전 69:00	본 당
XXXIII	오전 71:00	본 당
XXXIV	오전 73:00	본 당
XXXV	오전 75:00	본 당
XXXVI	오전 77:00	본 당
XXXVII	오전 79:00	본 당
XXXVIII	오전 81:00	본 당
XXXIX	오전 83:00	본 당
XL	오전 85:00	본 당
XLI	오전 87:00	본 당
XLII	오전 89:00	본 당
XLIII	오전 91:00	본 당
XLIV	오전 93:00	본 당
XLV	오전 95:00	본 당
XLVI	오전 97:00	본 당
XLVII	오전 99:00	본 당
XLVIII	오전 101:00	본 당
XLIX	오전 103:00	본 당
XLX	오전 105:00	본 당
L	오전 107:00	본 당
LI	오전 109:00	본 당
LII	오전 111:00	본 당
LIII	오전 113:00	본 당
LIV	오전 115:00	본 당
LV	오전 117:00	본 당
LVI	오전 119:00	본 당
LVII	오전 121:00	본 당
LVIII	오전 123:00	본 당
LIX	오전 125:00	본 당
XL	오전 127:00	본 당
XLI	오전 129:00	본 당
XLII	오전 131:00	본 당
XLIII	오전 133:00	본 당
XLIV	오전 135:00	본 당
XLV	오전 137:00	본 당
XLVI	오전 139:00	본 당
XLVII	오전 141:00	본 당
XLVIII	오전 143:00	본 당
XLIX	오전 145:00	본 당
XLX	오전 147:00	본 당
L	오전 149:00	본 당
LI	오전 151:00	본 당
LII	오전 153:00	본 당
LIII	오전 155:00	본 당
LIV	오전 157:00	본 당
LV	오전 159:00	본 당
LVI	오전 161:00	본 당
LVII	오전 163:00	본 당
LVIII	오전 165:00	본 당
LIX	오전 167:00	본 당
XL	오전 169:00	본 당
XLI	오전 171:00	본 당
XLII	오전 173:00	본 당
XLIII	오전 175:00	본 당
XLIV	오전 177:00	본 당
XLV	오전 179:00	본 당
XLVI	오전 181:00	본 당
XLVII	오전 183:00	본 당
XLVIII	오전 185:00	본 당
XLIX	오전 187:00	본 당
XLX	오전 189:00	본 당
L	오전 191:00	본 당
LI	오전 193:00	본 당
LII	오전 195:00	본 당
LIII	오전 197:00	본 당
LIV	오전 199:00	본 당
LV	오전 201:00	본 당
LVI	오전 203:00	본 당
LVII	오전 205:00	본 당
LVIII	오전 207:00	본 당
LIX	오전 209:00	본 당
XL	오전 211:00	본 당
XLI	오전 213:00	본 당
XLII	오전 215:00	본 당
XLIII	오전 217:00	본 당
XLIV	오전 219:00	본 당
XLV	오전 221:00	본 당
XLVI	오전 223:00	본 당
XLVII	오전 225:00	본 당
XLVIII	오전 227:00	본 당
XLIX	오전 229:00	본 당
XLX	오전 231:00	본 당
L	오전 233:00	본 당
LI	오전 235:00	본 당
LII	오전 237:00	본 당
LIII	오전 239:00	본 당
LIV	오전 241:00	본 당
LV	오전 243:00	본 당
LVI	오전 245:00	본 당
LVII	오전 247:00	본 당
LVIII	오전 249:00	본 당
LIX	오전 251:00	본 당
XL	오전 253:00	본 당
XLI	오전 255:00	본 당
XLII	오전 257:00	본 당
XLIII	오전 259:00	본 당
XLIV	오전 261:00	본 당
XLV	오전 263:00	본 당
XLVI	오전 265:00	본 당
XLVII	오전 267:00	본 당
XLVIII	오전 269:00	본 당
XLIX	오전 271:00	본 당
XLX	오전 273:00	본 당
L	오전 275:00	본 당
LI	오전 277:00	본 당
LII	오전 279:00	본 당
LIII	오전 281:00	본 당
LIV	오전 283:00	본 당
LV	오전 285:00	본 당
LVI	오전 287:00	본 당
LVII	오전 289:00	본 당
LVIII	오전 291:00	본 당
LIX	오전 293:00	본 당
XL	오전 295:00	본 당
XLI	오전 297:00	본 당
XLII	오전 299:00	본 당
XLIII	오전 301:00	본 당
XLIV	오전 303:00	본 당
XLV	오전 305:00	본 당
XLVI	오전 307:00	본 당
XLVII	오전 309:00	본 당
XLVIII	오전 311:00	본 당
XLIX	오전 313:00	본 당
XLX	오전 315:00	본 당
L	오전 317:00	본 당
LI	오전 319:00	본 당
LII	오전 321:00	본 당
LIII	오전 323:00	본 당
LIV	오전 325:00	본 당
LV	오전 327:00	본 당
LVI	오전 329:00	본 당
LVII	오전 331:00	본 당
LVIII	오전 333:00	본 당
LIX	오전 335:00	본 당
XL	오전 337:00	본 당
XLI	오전 339:00	본 당
XLII	오전 341:00	본 당
XLIII	오전 343:00	본 당
XLIV	오전 345:00	본 당
XLV	오전 347:00	본 당
XLVI	오전 349:00	본 당
XLVII	오전 351:00	본 당
XLVIII	오전 353:00	본 당
XLIX	오전 355:00	본 당
XLX	오전 357:00	본 당
L	오전 359:00	본 당
LI	오전 361:00	본 당
LII	오전 363:00	본 당
LIII	오전 365:00	본 당
LIV	오전 367:00	본 당
LV	오전 369:00	본 당
LVI	오전 371:00	본 당
LVII	오전 373:00	본 당
LVIII	오전 375:00	본 당
LIX	오전 377:00	본 당
XL	오전 379:00	본 당
XLI	오전 381:00	본 당
XLII	오전 383:00	본 당
XLIII	오전 385:00	본 당
XLIV	오전 387:00	본 당
XLV	오전 389:00	본 당
XLVI	오전 391:00	본 당
XLVII	오전 393:00	본 당
XLVIII	오전 395:00	본 당
XLIX	오전 397:00	본 당
XLX	오전 399:00	본 당
L	오전 401:00	본 당
LI	오전 403:00	본 당
LII	오전 405:00	본 당
LIII	오전 407:00	본 당
LIV	오전 409:00	본 당
LV	오전 411:00	본 당
LVI	오전 413:00	본 당
LVII	오전 415:00	본 당
LVIII	오전 417:00	본 당
LIX	오전 419:00	본 당
XL	오전 421:00	본 당
XLI	오전 423:00	본 당
XLII	오전 425:00	본 당
XLIII	오전 427:00	본 당
XLIV	오전 429:00	본 당
XLV	오전 431:00	본 당
XLVI	오전 433:00	본 당
XLVII	오전 435:00	본 당
XLVIII	오전 437:00	본 당
XLIX	오전 439:00	본 당
XLX	오전 441:00	본 당
L	오전 443:00	본 당
LI	오전 445:00	본 당
LII	오전 447:00	본 당
LIII	오전 449:00	본 당
LIV	오전 451:00	본 당
LV	오전 453:00	본 당
LVI	오전 455:00	본 당
LVII	오전 457:00	본 당
LVIII	오전 459:00	본 당
LIX	오전 461:00	본 당
XL	오전 463:00	본 당
XLI	오전 465:00	본 당
XLII	오전 467:00	본 당
XLIII	오전 469:00	본 당
XLIV	오전 471:00	본 당
XLV	오전 473:00	본 당
XLVI	오전 475:00	본 당
XLVII	오전 477:00	본 당
XLVIII	오전 479:00	본 당
XLIX	오전 481:00	본 당
XLX	오전 483:00	본 당
L	오전 485:00	본 당
LI	오전 487:00	본 당
LII	오전 489:00	본 당